



“살려주세요”... 동사무소 찾아 목놓아 운 까치의 모정

등지에서 500m 떨어진 순천 저전동행정센터 앞에서 애타게 호소
확인해보니 등지 추락...“새끼 구하려 민원 넣은 듯” 직원들이 보수
까지 지능 6~7살 수준...고양이가 까치집 노리자 다시 찾아와 울어

“까치가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하도 시끄럽게 우는 바람에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였어요.” 1일 순천시 저전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전 8시 30분께부터 한 시간여 동안 센터 인근에서 까치 울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평소 들리지 않던 까치소리가 계속 이어지자 직원들은 의아해 했지만 그저 시끄러운 새 소리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까치 울음소리가 이어져 직원들이 소음 스트레스를 호소할 지경이 되자 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길거리에 까치가 떨어졌어요”는 것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직원들은 바닥에 통째로 떨어진 까치 등지를 발견했다. 등지는 센터와 500m 떨어진 곳에 있었고, 부실하게 만든 탓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등지 안에는 새끼 까치 3마리가 아직 살아 있었지만, 등지 밖에는 한마리가 죽어 있었다. 직원들은 등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서 이탈한 한 마리가 충격에 의해 죽은 것으로 추정했다.

직원들은 곧바로 순천시 동물자원과에 협조 요청해 까치 구조와 등지 보수 작업에 나섰다. 새끼 까치가 담긴 등지를 그대로 들어올려 아래에 플라스틱 소쿠리로 받쳤다. 혹시 등지가 부서져 새끼 까치들이 2차로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 센터 직원들은 그제서야 한시간 동안 이어진 까치 울음소리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조치 후 행정복지센터에 올려뒀던 까치의 울음소리가 멎었기 때문이다. 이형동(31) 저전동 행정복지센터 총무과 주무관은 “그날따라 유독 행정복지센터에 와서 울더니, 자기 새끼를 구해달라고 민원 넣으러 왔던 것 같다”면서 “현장과 센터는 500m나 떨어져 있는데 까치의 자식사랑이 대단하다. 동사무소에 사람들이 오가는 줄 알고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 같다”고 웃어보였다. 한차례 민원(?)을 잘 해결 해준 탓이었는지 1일 까치의 민원이 다시 이어졌다. 더는 찾아오지 않는 듯 했던 까치는 일주일만 인 이날 다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큰 소리로 울



나무 아래로 떨어진 까치 등지(왼쪽)와 저전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보수한 새로운 등지(가운데). 오른쪽은 새끼 까치가 있는 등지를 노리는 고양이.



《순천 저전동행정복지센터 제공》

기 시작했다. 일주일 전의 민원을 생각한 직원들은 곧바로 등지가 있는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직원들은 깜짝 놀랐다. 고양이 한 마리가 나무 위에 놓인 까치 등지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양이는 육식동물로, 높게 뛰어올라 날거나 쉬고 있는 새를 떨어뜨려 잡아먹기 때문에 서로 천적관계다. 직원들의 뒤를 따라온 까치 두 마리도 고양이 주변으로 날갯짓을 하며 쫓으려 하고 있었다.

직원들이 다가가지 않으면 고양이는 화들짝 놀라 자동차 아래로 숨었고 까치의 울음소리는 다시 그쳤다. 센터 직원들은 “까치집에 알을 노리던 구렁이의 접근을 온갖 동작과 고성으로 막던 어미 까치가 종래에는 자신이 먹이가 되어 자식을 구하는 동화속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까치는 우리나라 뒷새로 오래전부터 마을 주변에 살며 길조로 불려왔다. 조류 전문가들은 까치는 맹금류 등의 천적을 피해 주로 높은 나무 꼭대

기에 견고한 등지를 만들어 번식을 하고 지능도 미취학 아동 수준의 높은 지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일수 조류 전문 수의사는 “까치는 똑똑하고 알려진 까마귀와 지능이 비슷해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도구까지 사용한다”며 “사람들의 모습이나 성향이 모두 같지 않듯 민원을 해결하러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까치도 무리중에서 더 뛰어난 친구가 아니었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도시화의 역습...그 많던 제비는 어디로 갔나

광주 아파트·빌딩 들어서며
주택과 처마 사이 등지 못 틀어
기후위기 지표종 못 볼 수도
일부 주민 제비집 제공 상생도

‘홍부전’에서 박씨를 몰고와 행운을 안겨다 준 제비를 더 이상 광주도심에서 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광주도심 곳곳에 아파트와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 제비 등지를 틀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1일 광주지역 동물권 단체인 ‘성난비건’은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일대에서 ‘제비 부동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제비 부동산은 성난비건이 올해 처음 시작한 제비 등지 모니터링 활동으로 아직 구도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광주시 광산구 영광동 상가, 송정매일시장, 1913 송정역 시장 일대(2km)를 도보로 이동하며 제비등지를 찾는 활동이다. 제비는 여름철새이자 기후위기 지표종으로 이미 동물단체 등은 멸종위기종으로 보고 있다.



1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광주송정역시장의 한 식당 조맹에 제비 등지가 지어져 있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단체와 함께 이날 오전 9시부터 2시간여 동안 확인한 결과 총 14개의 제비 등지를 발견했다. 광주·전남 지역은 점차 제비가 살기 힘든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제비들은 집을 짓기 위해 진흙을 퍼오고 인근에서 건조를 물어와야 하지만 농사가 대부분이었던 과거와 다르게 비닐하우스 위주의 시설농업으로 바뀌면서 등지재료를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것

이다. 또 제비의 먹이는 하천과 습지 주변에 사는 하루살이, 잠자리, 벌, 모기 등인데, 광주와 전남이 모두 도시화되면서 하천 등이 사라지게 돼 먹이 부족 현상으로 자연스레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광산구의 경우 일부 주민들은 제비와 같이 공생을 하고 있었다. 송정역시장의 한 국수집은 제비 등지 7개가 연

이어 자리잡고 있어 ‘제비 아파트’로 불렸다. 가게에 달린 조맹 5개에는 모두 위쪽에 제비 집이 올라가 있었다. 업체대표는 제비들과의 공생을 위해 제비 집이 지어진 조맹 3개를 증고로 사와 이곳에 설치했다. 제비들의 분변으로 발생하는 악취와 얼룩 때문에 등지 자체를 없애고 있었지만, 일부 주민들은 등지 아래 분변 받침대를 설치한 곳도 확인됐다. 제비는 한국에 도래하는 시기에 따라 기후위기 정도를 알 수 있어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으로 분류되지만 정확한 생태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현재 광주에 살고 있는 제비개체 수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10여년간 제비 등지 모니터링을 해 온 김철복 한국제비네트워크 대표는 “제비의 수가 급속하게 줄어들어 2009년에는 제비 집단 번식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려는 논의가 있을 정도”라며 “시민들이 제비 집으로 인해 불편하게 느끼는 상황을 등지받침대와 같은 개선책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나서서 인식개선과 각종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조선대병원 교수도 휴진 논의 전남대병원은 3일 자율 휴진

전남대병원이 3일 교수 자율적으로 휴진을하기로 한데 이어 조선대학교 병원도 ‘주 1회 정기 셧다운(휴진)’ 도입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1일 조선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조대비대위)에 따르면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들은 2일 오후 4시 30분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주 1회 정기 휴진에 대해 논의한다. 장기간 비료 상황에서 교수들이 정직적, 신체적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논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조대비대위 측의 설명이다. 조선대 비대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휴진 참가 여부와 방식 등을 논의하고, 기존에 접수해 보관 중이던 사직서의 제출 방침도 논의한다. 이에 앞서 전남대병원 교수들은 3일부터 주 1회 외래 진료를 휴진하기로 결정했다. 휴진을 과별·교수별 자율에 맡겨 당장 3일에는 휴진을 하는 교수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남대 의대 비대위는 “환자들에게 진료예약 일시를 이미 통보했기 때문에 당일 휴진을 하는 교수들은 많지 않겠지만 점차 외래 일정을 조율해 금요일 휴진을 진행하는 교수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